

대학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개선사항 연구

Study for improvement of a non-face-to-face university piano accompaniment class

권미혜¹

Mi-Hye Kwon¹

요약

비대면 피아노 반주법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강의 영상은 상하분할한 화면으로 구성하여, 악보와 교수자의 손 모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93%의 수강생은 피아노 실습이 가능한 곳에서 강의 영상을 재생하며 실습과 학습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100%의 수강생이 반복 재생을 활용하였고 33%의 수강생은 저속 재생도 활용하였다. 반복 재생한 수강생의 86%는 교수자의 손 모양을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였고 저속 재생한 수강생의 100%는 교수자의 손 모양을 보다 잘 보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화면 구성의 만족도는 4.93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매우 높았다. 수강생의 33%는 학습 효과가 우수함을 장점으로 선택하였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선택할 수 있다면 73%의 수강생은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악기 실기에 대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화면 구성이 수강생의 학습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습 효과 상생을 위해, 피아노 반주법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수자의 손 모양을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핵심어 :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 수업 화면 구성, 수업 만족도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on non-face-to-face piano accompaniment class students. The lecture video is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screens so that the score and the hand position of the instructor can be viewed together. 93% of the students played the lecture video in a place where piano practice was possible, and practice and learning were carried out together. 100% of students used repeat play function and 33% of students used slow play function. 86% of the students who used repeat play function answered that it was to learn repeatedly while looking at the hand position of the instructor, and 100% of the students who used slow play function answered that it was to better see the instructor's hand position. Satisfaction with the screen layout was relatively high at 4.93 points, and satisfaction with the non-face-to-face piano accompaniment method was very high at 5 points. 33% of the students selected the excellent learning effect as an advantage. When the pandemic is over and options are available, 73% of students said they would choose the non-face-to-face method. Through this investigation, it is analyzed that, in the case of a non-face-to-face class on musical instrument practice, an appropriate screen layout

¹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Seowon University,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Professor]
e-mail: mihkwon@gmail.com

Received(September 11, 2022), Review Result(1st: September 29, 2022), Accepted(October 14, 2022), Published(October 31, 2022)



© 2022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an motivate students to learn. In order to increase the learning eff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conveying the hand position of the instructor to the students even when performing face-to-face lessons with piano accompaniment, and consider the blended learning of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Keyword : Piano accompaniment method, non-face-to-face class, screen layout, class satisfaction

1. 들어가는 말

한국 중고등학교의 음악 교과 수업에서 노래의 반주 및 다른 악기와의 합주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악기는 피아노이다. 피아노는 음역이 넓고, 리듬, 선율, 화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고, 조율에 의해 음이 고정되어 학생의 음감 형성에 효과적이다 [1].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녹음된 음향 반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아노 실음 반주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선율과 리듬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음악적 소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의 음악적 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되도록 피아노 실음 반주가 권장된다 [2]. 중등교원 임용경쟁시험의 음악 교과에서 피아노 반주법은 2차 실기평가의 필수 과목이며, 주요 대학 음악교육과는 전공 악기와 무관하게 피아노 반주법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운용한다.

2020년 이후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학에서 많은 이론 및 실기 과목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아노 반주법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여야 하는 실기 과목도 마찬가지이다. 악기 연주 실기 과목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수자와 수강생이 음악적 표현을 통신 지연 없이 전달받기 위한 인터넷 속도와 음향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일정 수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다 [3]. 악기 연주 실기 과목에 특화된 학습 모델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지만 [4][5], 아직 최적의 학습 모형이 제시되지 않았다 [6]. 저자는 S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악기 연주 실기 과목인 전공실기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수강생의 연주 영상과 교수자의 레슨 영상을 비실시간으로 별도 주고받는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연구한 바 있다 [7]. 해당 연구에서 비대면 비실시간 피아노 실기 수업의 장점으로 객관적 실력 검증, 영상 반복 재생, 1인당 레슨 시간 증가, 자유로운 레슨 시간 및 장소 등이 확인되었으나 단점으로 음악적 표현의 한계와 소통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대학에서의 피아노 반주법 과목은 피아노 실기 과목의 일종이지만 자신의 전공 악기를 연주하는 전공실기 과목과 차이가 있다. 전공실기 과목의 수강생은 수년간 연습한 자신의 전공 악기를 실습하지만, 피아노 반주법 과목은 전공 악기가 피아노가 아닌 수강생도 포함된다. 피아노 반주는 별도의 반주 악보가 없는 곡, 즉 노래의 선율만 주어진 채 반주를 만들어 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곡의 분위기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반주 형태, 화성 진행, 음악적 표현이 요구되기에 반주 경험이 중요한데, 학생들의 반주 경험과 수준은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제재곡을 해

석하고 반주의 이론을 교육하는 이론 교육과, 곡의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수자의 연주 시범이 중요하다.

저자는 S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수년간 피아노 반주법을 대면 수업으로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저자는 피아노 전공실기 과목도 2020년과 2021년에 비대면 수업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공실기 과목과는 다른 피아노 반주법 과목만의 장단점들이 파악되었다. 수강생 입장에서의 만족도와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피아노 반주법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대면 피아노 반주법 수업의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수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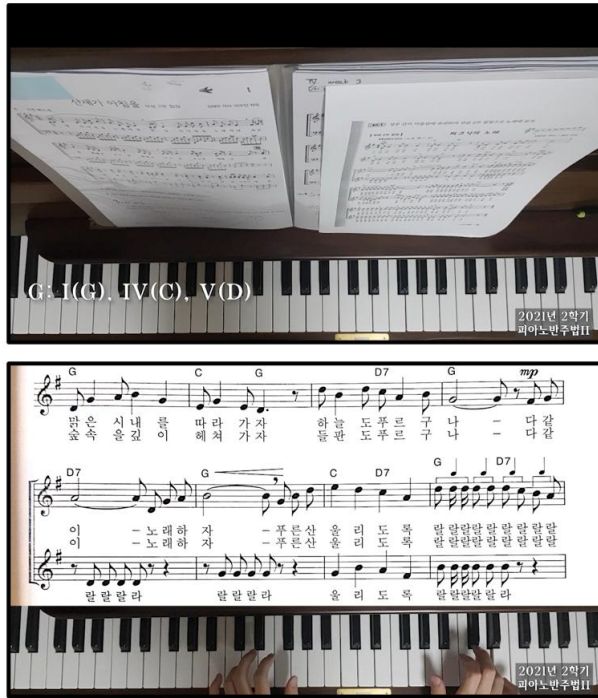
2.2.1 대면 수업

S대학 음악교육과 커리큘럼에 따라 3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2시간의 피아노 반주법 수업이 이루어졌다. S대학 음악교육과의 학년별 정원은 특별 전형생을 포함하여 약 22명이며, 해마다 다르지만 학생 대부분의 전공이 피아노이고 성악, 작곡 등 전공이 피아노가 아닌 신입생이 반드시 포함된다.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3학년 학생은 피아노 반주법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수강한다. 매 수업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곡 중 2~3곡을 제재곡으로 선정하여 피아노 반주법을 학습하였다. 대면 수업시 수강생은 한 강의실에 모여서 교수자의 연주 시범과 함께 이론 강의를 약 30분 듣고 90분은 1:1 레슨을 받았다. 30분의 연주 시범시 교수자는 이와 동시에 화성 진행, 반주 형태 등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90분의 1:1 레슨시 수강생은 한 명씩 교수자 앞에서 자신이 연습한 제재곡을 연주하고 교수자는 즉시 이를 피드백하거나 연주를 시범하여 교습하였다. 1인당 평균 4분 정도의 교습 시간이 할당된다. 레슨을 받는 수강생 외 나머지 수강생들은 강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전자피아노를 사용하여 제재곡을 계속 연습하였다.

2.2.2 비대면 수업

2021년도의 피아노 반주법 과목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비대면 수업은 구글 클래스, Zoon, Webex 등을 활용하는 실시간 수업 방식과 교수자가 미리 촬영한 영상을 YouTube 등에 업로드하여 수강생이 이를 수강하는 비실시간 수업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7], 2021년도의 피아노 반주법 과목은 비실시간 수업 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수자는 이론 강의 및 연주 시범 영상을 약 30분

길이로 촬영하여 YouTube에 업로드하고 대학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공유하였다. 이론 강의와 연주 시범 영상 모두 3:1의 상하분할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위쪽 화면에서는 필요시 악보를 보여주며, 아래쪽 화면에서는 건반과 교수자의 손을 보여주었으며 필요시 자막을 추가하였다. [그림 1]의 위 그림은 이론 강의시 화면의 예시이며 아래 그림은 연주 시범시 화면의 예시이다. 수강생은 해당 영상을 재생하며 학습한 후 자신의 연주 영상을 별도 촬영하여 LMS의 과제 게시판에 제출하였다. 교수자는 이를 확인한 후 해당 게시판에서 피드백을 통해 각각의 코멘트를 수강생에게 전달하였다.



[그림 1] 비대면 수업 영상의 화면 구성

[Fig. 1] The screen layout of non-face-to-face lecture video

2.2 조사 개요

본 연구의 조사는 S대학 음악교육과 2021년 2학기 피아노 반주법II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5주차의 수업이며, 1주차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2주차부터 13주차까지의 수업은 비대면 비실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팬데믹 상황 완화에 따라 14주차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졌고, 15주차에는 대면으로 개인별 시험이 치러졌다. 따라서 조

사대상자들은 대면 수업 방식과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피아노 반주법 수업을 모두 경험한 수강생이다. 해당 강의의 총 수강생은 총 22명이나 15명은 조사에 응답하였고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3. 연구 결과

3.1 강의 영상 학습 장소 및 학습 방법

피아노 반주법 강의 영상을 피아노 실습이 가능한 곳에서 재생하며 학습하는지 여부를 2지 선다형으로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 결과 93%의 수강생은 피아노 실습이 가능한 곳에서 강의 영상을 재생하며 실습과 학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며 7%의 수강생만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의 2020년 연구 결과 [7], 피아노 반주법 과목과 달리 전공실기 과목은 63%의 수강생이 레슨 영상을 피아노가 없는 환경에서 재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피아노 반주법 강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거나 저속 재생하는지 복수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보았으며, 조사 결과 100%의 수강생이 반복 재생을 하였으며, 33%의 수강생은 반복 재생과 함께 저속 재생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복 재생을 하는 이유와 저속 재생을 하는 이유를 서술형으로 물어보았다. 반복 재생을 하는 이유는, 피아노 반주가 어렵고 반복 학습이 필요하기에 손 모양(hand position)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학습하기 위함이 86%, 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 7%, 피아노 반주의 다른 방식을 더 익히기 위함이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속 재생을 하는 이유는 모두 손 모양을 더 잘 보기 위함이었다. 반복 재생 및 저속 재생은 비대면 수업의 큰 강점인데, 피아노 반주법 교과의 경우 수강생은 교수자의 손 모양을 학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수업의 강점이 잘 발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1] 강의 영상 학습 장소 및 학습 방법의 조사 결과

[Table 1] Survey on lecture video learning place and learning method

구분	조사 결과
영상 재생 및 학습 장소	피아노 실습이 가능한 곳 (93%) 피아노 실습이 불가능한 곳 (7%)
반복 재생 또는 저속 재생 여부	반복 재생을 한다 (100%) 저속 재생을 한다 (33%) 반복 재생과 저속 재생을 모두 하지 않는다 (0%)

3.2 강의 영상의 화면 구성

비대면 수업의 강의 영상에서 대면 수업시 불가능하였던 교수자의 손 모양을 악보와 함께 수강

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상하분할 화면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강의 영상의 화면 구성의 조사 결과

[Table 2] Survey on the screen layout of non-face-to-face lecture video

구분	조사 결과
화면 구성 만족도	4.93 / 5 (무응답 1명)
화면 구성과 관련한 추가 의견	추가 의견 없음 (13명) 손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촬영 (1명) 제재곡의 코드를 자막으로 제공 (1명) 피아노 페달에 관한 화면 제공 (1명)

화면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4.93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화면 구성에 대한 추가 의견이 없었으나, 손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촬영될 것과 피아노 페달에 관한 화면이 제공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화면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교수자의 손 모양이 잘 보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반복 재생과 저속 재생의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피아노 반주법 대면 수업은 한 강의실에 모여서 이루어지기에 교수자의 손 모양이 피아노에 가려지거나 가려지지 않더라도 교수자가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교수자의 반주 형태를 수강생이 따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청음 실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음 실력은 수강생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청음 실력이 좋지 못한 수강생은 대면 수업시 교수자가 어느 건반을 어떠한 손 포지션으로 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대면 수업의 이러한 문제가 화면을 적절하게 구성할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해결 가능하였다. 대면 수업만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강의실에 모인 수강생들에게 교수자의 손 모양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방법을 찾아서 실행한다면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선 조사 결과와 같이 수강생의 93%가 피아노 실습이 가능한 장소에서 강의를 학습하였음을 고려한다면, 피아노 보면대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올려두면서 영상을 재생하여 피아노 실습이 가능하도록 악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한 점도 만족도가 높은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추가 의견과 관련하여, 촬영된 영상에서는 교수자의 손가락 정도만 나타나도록 구성되었는데,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 전체와 손목까지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한다면 수강생의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피아노 페달 화면을 제공한다면, 페달의 정확한 사용 타이밍과 사용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3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와 장단점

조사 대상자에게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물어보았다. 만족하는 이

유와 불만족하는 이유를 선택형으로 물어보았으며 각각 4개의 문항을 제공하였고 그중에서 복수 선택 가능하게 하였으며, 문항이 없는 경우 서술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로 서 원하는 장소/환경에서의 수강, 등하교하지 않는 시간적/경제적 장점, 대면 수업 대비 우수한 학습 효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의 항목을 제공하였고,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서 학습하기 어려운 장소나 환경, 교수자의 소통 어려움(질문 어려움), 함께 수업 중인 동료와의 비교평가 어려워 객관적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대면 수업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의 학습 도구, 수업 기자재 활용 불가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펜데믹 상황이 없어지고 수강생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의 수업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 만족도의 조사 결과

[Table 3] Survey on satisfaction with non-face-to-face lessons with piano accompaniment

구분	조사 결과
만족도	5/5 (무응답 3명)
만족하는 이유	원하는 장소/환경에서 수강 (8명) 등하교하지 않는 시간적/경제적 장점 (3명) 대면 수업 대비 우수한 학습 효과 (7명)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함 (3명)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학습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환경 (0명) 교수자 소통 어려움 (4명) 함께 수업 중인 동료와의 비교평가 어려워, 객관적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4명) 대면 수업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의 학습 도구, 수업 기자재 활용 불가능 (2명)
선택 가능하다면 선택하고 싶은 피아노 반주법의 수업 방식	비대면 수업 (73%) 대면 수업 (27%)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5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의 2020년 연구 결과 [7], 피아노 반주법 과목과 달리 전공실기 과목의 비대면 수업 만족도는 5점 환산시 3.03점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만족하는 이유로서 장소와 환경의 자유, 등하교하지 않는 장점, 감염으로부터의 안정성과 같은 비대면 수업의 일반적 장점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의 67%였으나, 33%는 학습 효과가 우수함을 선택하였다. 피아노 반주법 교과에 한해서는 비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가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며, 이는 적절한 화면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서 소통의 어려움, 비교 형가의 어려움, 대학 피아노와 같은 학습 도구 사용의 어려움 등 비대면 수업의 일반적 단점이 선택되었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선택하고 싶은 피아노 반주법 수업 방식으로서 73%의 수강생이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였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동안의 비대면 피아노 반주법 수업을 진행한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영상 학습 장소와 학습 방법을 조사하고, 강의 영상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 의견을 조사하고,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93%의 수강생은 피아노 실습이 가능한 곳에서 학습하고 있었으며, 100%의 수강생이 반복 재생을 활용하였고 33%의 수강생은 저속 재생도 활용하였다. 반복 재생한 수강생의 86%는 교수자의 손 모양을 보면서 반복 학습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였고 저속 재생한 수강생의 100%는 교수자의 손 모양을 보다 잘 보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화면 구성의 만족도는 4.93으로 높았으며, 손 모양이 보다 잘 보이는 화면과 피아노 페달에 대한 화면 요구가 있었다.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매우 높았다. 비대면 수업의 일반적인 장점 외에도 수강생의 33%는 학습 효과가 우수함을 장점으로 선택하였다. 펜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선택할 수 있다면 73%의 수강생은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저자의 2020년 전공실기 수업의 조사 결과 만족도가 3.03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반주법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화면 구성에 대한 추가 의견, 반복 재생 및 저속 재생의 이유,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 등을 통해 분석해보건대, 교수자의 손 모양을 제공하는 상하분할 화면 구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아노 반주법 교과가 전공 악기가 피아노가 아닌 학생도 수강하여야 하며 반주 경험과 수준, 청음 실력 등이 수강생마다 크게 다르기에, 교수자의 손 모양에 대한 정보는 피아노 반주법 학습 효과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악기 실기에 대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 해당 교과의 학습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화면 구성을 한다면 수강생의 학습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의 2020년 연구 결과 [7], 비대면 전공실기 수업의 영상에서도 손 모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으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37%의 수강생만이 피아노 실습과 함께 영상을 학습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손 모양이 잘 드러남을 이유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93%의 학생이 피아노 실습과 함께 영상을 학습하였다. 피아노 반주법 교과는 그 특성상 악보와 손 모양을 함께 제공하는 상하분할 방식이 적절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전공실기 수업은 이와는 다르게 해당 교과 특성을 고려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피아노 실습과 함께 영상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수강생의 연주 영상에서 손 모양과 교수자의 손 모양이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좌우분할 화

면을 채택하는 방식 등으로, 수강생이 피아노 실습과 함께 영상을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수자의 손 모양을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면 수업시 교수자의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대면 수업 강의실에서 촬영된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인터넷 상태에 따른 시간 지연, 즉 수강생 입장에서 귀에 들리는 음과 화면에서 보이는 손 모양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케이블에 의한 직접 연결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수강생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됨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교수자의 설명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악보도 보아야 하는데, 화면을 통해 교수자의 손 모양도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손 모양이 보여주는 스킬(skill) 측면에만 몰입하여 더 중요한 곡 분위기 형성 방법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2회 이상 연주 시범하되 1회차에는 손 모양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2회차에만 손 모양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손 모양을 보여주는 영상과 더불어 피아노 페달에 대한 영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고려할 수 있다. 강의 전 사전 영상으로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화면이 구성된 연주 시범 영상을 제공하여 손 모양을 보면서 제재곡을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대면 방식의 본 수업에서는 1:1 레슨만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수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본 수업에서 1:1 레슨을 시행함과 더불어 레슨을 받은 수강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화되거나 심화된 학습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대면 방식의 본 수업은 기존의 대면 수업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교수자의 연주 시범 영상을 별도로 제공하여 수강생이 손 모양을 보면서 복습하게 하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의 수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아쉬웠다.

22명의 수강생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이 15명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은 가장 아쉬운 점이다. 향후 동일한 조건의 수업을 진행한 후 보다 많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시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수강생이 수강한 피아노 반주법 수업 15주차 중 12주는 비대면 수업이었고 그 외의 수업이 대면 수업이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한 것은 사실이나 대면 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가 피아노 반주법을 강의하는 교수자에게 그 형식이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1] D. Kwak, J. Choi, "Correlation Between Piano Accompaniment and Teaching Anxiety of Prospective Music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2, no. 2, April 2021, pp. 1919-1928, doi: 10.22143/HSS21.12.2.135.
- [2] S. Kwon, S. Bae, "Analysis of Piano Accompaniment Scores in 2015 Revised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Guidebook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7, no. 4, December 2019, pp. 185-203.
- [3] H. Kwon,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Non-face-to-face Online Practical Classes in Music College according to COVID-19 Crisis Response",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vol. 6, no. 1, April 2021, pp. 69-89, doi: 10.36223/jnafme,2021.6.1.004.
- [4] H. Suh,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in Non-Face-to-Face Cla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November 2020, pp. 157-164, doi: 10.17703/JCCT.2020.6.4.157.
- [5] Y. Lee,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between Online Learning Patterns and Learning Effects in the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8, August 2020, pp. 557-562, doi: 10.5762/KAIS.2020.21.8.557.
- [6] B. Park, "A Study on the Learner's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and Teaching Method of Online Piano Less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vol. 21, no. 2, September 2020, pp. 121-152.
- [7] M. Kwon, "A study for satisfac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non-face-to-face non-real-time college applied music piano lessons",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 8, no. 3, September 2021, pp. 277-287, doi: 10.29056/jdaem.2021.09.04.